

**2022 년 1 월 2 일 “(신년감사예배) 사랑과 선한 일을 격려합시다” (히 10:24)**

하나님의 축복은 어떤 모습으로 삶에 임하는가에 달려 있기도 합니다. 이것에 관하여 말씀의 안내를 받고 행할 때 어떤 축복을 경험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1] 히 10:24**

- (1) “서로 마음을 써서”(개역개정-‘서로 돌아보아’) 히 3:1 ‘... 예수를 깊이 생각하십시오’에서 ‘생각하라’와 ‘마음을 써서’는 동일한 원어(카타노에오). 예수님을 바라보고 집중하는 모습을 사람에게도 동일하게 행하라는 뜻입니다. (마 25:40 작은 소자에게 한 것이 예수님께 행한 것)
- (2) “사랑(아가페)과 선한 일을 하도록 격려하자” 아가페는 인간의 사랑을 말할 때도 종종 사용됩니다. 조건 없이 사랑하라는 의미로서 선한 일의 동기와 힘이 됩니다.

**[2] 선한 일을 통하여 얻는 축복**

선한 일을 통해 얻는 축복(선물)은 삶에서 소중한 가치를 발견하는 것입니다(빅터 프랭클).

(1) 창조적 가치

선한 일을 통해 새로운 것이 창출되면 창조적 가치를 발견하고 누리게 됩니다.

예: 예술, 과학, 일상 등...

(2) 경험적 가치

이것은 비록 과정 중에는 인식하지 못해도 훗날 가치 있는 일이었다고 말할 수 있는 축복입니다.

예: 자녀 양육 - 훗날 양육의 선한 일의 가치가 드러남. 교회 사역을 통해서도 경험.

(3) 태도적 가치

삶의 고난 속에서도 타인을 위한 배려는 선택입니다. 사랑과 선한 일을 선택하는 태도는 사람의 무한한 잠재력을 발견하게 하고 비극을 승리로 바꾸어 놓습니다.

토스토예프스키 ‘내가 세상에서 두려워하는 하나는 내 고통이 가치 없는 것이 되는 것이다’

형제자매를 예수님을 바라보듯 하며 선한 일의 선택이 부요한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나눔의 질문>**

1. 지금까지 나는 삶 속에서 어떤 가치를 중요하게 여기며 누리며 살아왔습니까?
2. 올해 선한 일에 힘쓰는 성도로서 특별히 결단하는 바가 있다면 무엇입니까?